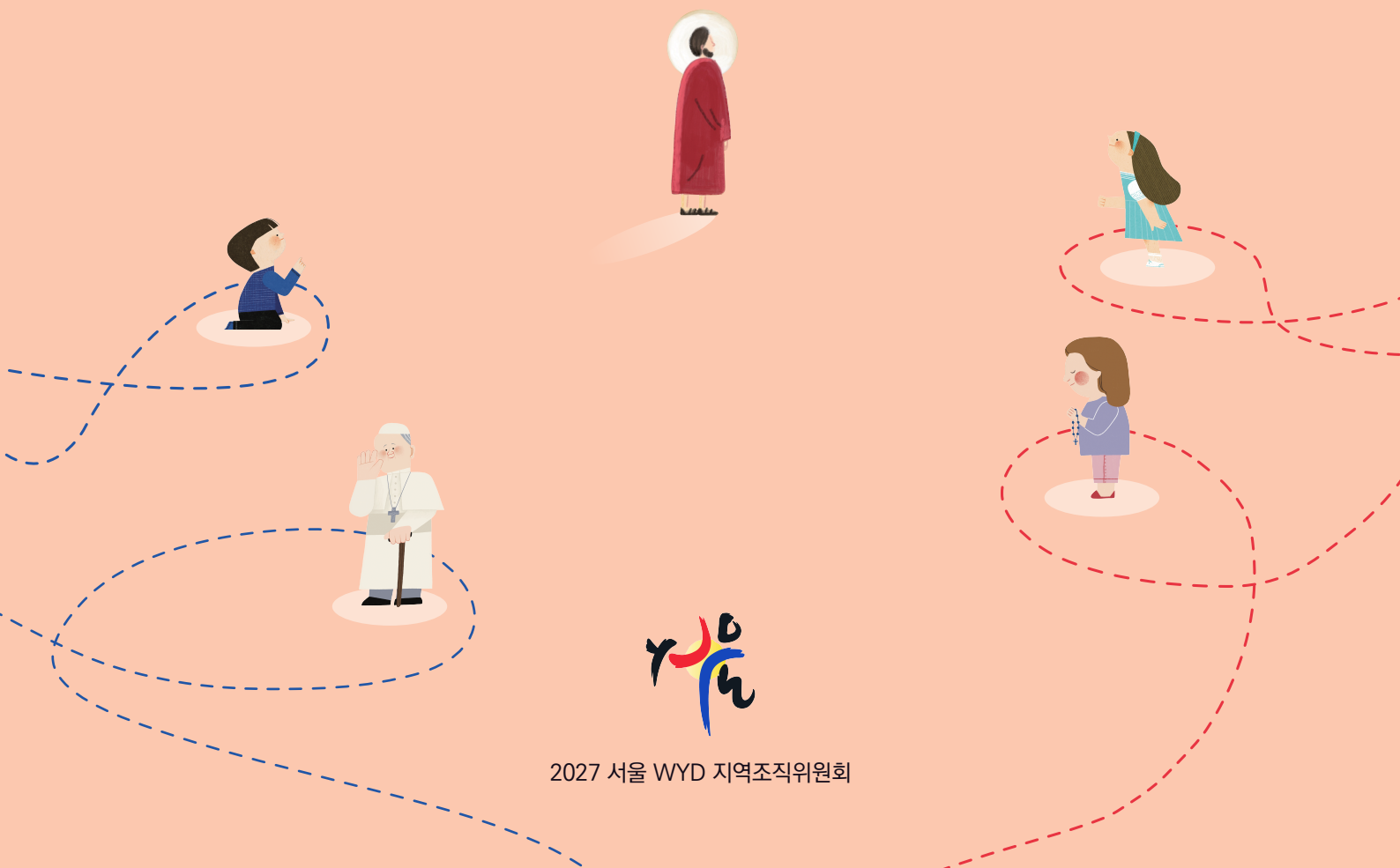


워크북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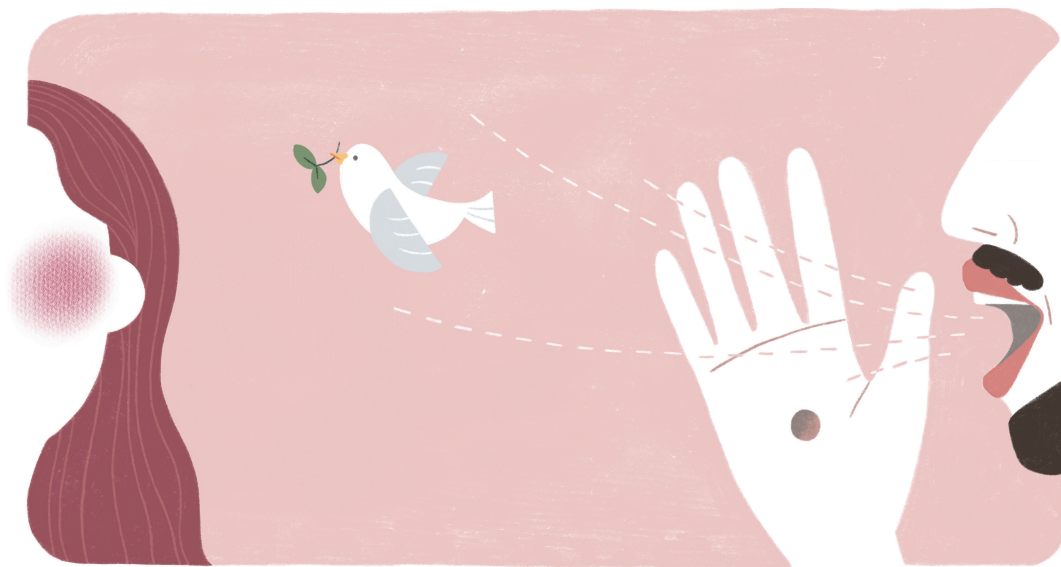
2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순례하는 백성의 일원인 우리가 당신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여 우리의 다양한 생활 신분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선물들을 어디에서 열매 맺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사랑과 관대한 수용, 아름다움과 평화의 표징이자 도구가 되기 위하여 따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제61차 성소 주일 담화」 2004년,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아래의 글을 정성껏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마태오 복음서 14장 22-33절은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폭풍우 치던 밤에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군중의 경탄을 자아낸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이 장면은 어느 모로든 우리 삶의 여정을 연상시켜 줍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안전한 물에 달기를 초조히 고대하며, 바다 위에서 기회든 위험이든 맞닥뜨릴 채비를 하는 동시에, 키잡이가 우리를 마침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열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배가 항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등대의 불빛을 쫓아가는 대신에, 환영에 현혹되어 버리거나, 난관과 의혹과 두려움이라는 맞바람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제자들의 마음에도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나자렛의 스승을 따르라고 부름받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주님을 따라나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건너편 강가로 건너갈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험은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밤이 되어 맞바람이 불고 배는 출렁이는 파도에 요동칩니다. 부르심에 부응할 수 없고 이를 해낼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에 압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힘겨운 여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 줍니다. 한밤을 가르며 여명의 첫 빛줄기처럼, 주님께서 파도로 심하게 출렁이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께서는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구해 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을 그치게 해 주십니다.

모든 성소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눈길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배가 폭풍우에 휩싸이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성소가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소는 주님의 과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60주년을 맞이하여 사제들에게 보내는 서한, 2019.8.4. 따라서 마음을 열어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성소를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57차 성소 주일 담화」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





생각해 보아요

- □ 나는 언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나요?
.....
-
.....
-
.....
-
.....
-
.....
-
.....
-
.....
-
.....
-
.....
- □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나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
-
.....
-
.....
-
.....
-
.....
-
.....
-
.....
-
.....
-
.....
-
.....



○ 시작 기도

○ 나누고 듣기

○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 함께 만들어 나가기

‘시노드를 위한 기도’ 16쪽을 함께 바칩니다.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혹은 문장을 각자 메모지에 적고, 함께 모아 사진을 찍습니다. 해당 사진에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삶이 좋은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며 삶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개 젊은이들은 우리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묻습니다.

이러한 어둠을 밝히는 것은 믿음의 빛입니다. 믿음의 빛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 사랑의 열매이므로 모든 인간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서 멀어진 이들이든 당신을 잊어버린 이들이든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내로이 기다려 주십니다.

「제28차 청소년 주일 담화」 2013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된 서울과 전세계의 청년을,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서
'W', 'Y', 'D'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WYD가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를 지향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